

# 미국의 마초문화를 비틀다



고급 스포츠카 뒤에는 리어 스포일러(날개 모양의 부품)가 달려 있다. 이때 스포일러는 고속 주행 때 차체가 떠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장식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미국의 떠오르는 스타 작가 에런 영(41)에게 스포일러는 미국을 지배하는 남성 문화의 상징이다. “스포일러는 미국이 집착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힘, 즉 권력에 대한 집착, 멋있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 어디서든 최고여야 한다는 탐욕을 보여주지요.”

그는 이 스포일러만 떼어내 전시장 벽에 나란히 걸어놨다. 흡사 미니멀 아티스트 도널드 저드의 조각을 보는 듯하다. 에런 영의 두 번째 국내 개인전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는 3년 전 오토바이로 그린 그림을 선보여 국내에도 마니아층을 거느린 인기 작가다. 이번에도 함석판에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선명한 추상 회화를 발표했다.

오토바이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서 동

## 에런 영 국제갤러리 개인전 오토바이·스포츠카 소재로

### 60·70년대 美대중문화 재해석

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바퀴가 헛돌며 일명 ‘번 아웃(Burn-out)’ 현상에 의해 관 위에 궤적을 남긴다. 이 결과 페인트가 칠해진 함석판에는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형상이 그려진다. 굵은 바퀴 모양의 이미지가 서로 엇갈리면서 중첩되고 뒤엉킨다.

오토바이 역시 할리데이비슨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마초들의 상징이다. 그는 “존 케이지가 트럭을 몰면서 종이를 깔고 잉크 자국을 남게 한 영상작품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했다.

유진상 미술평론가는 “에런 영의 작품은 1960~1970년대 미국 경제부흥기에서 일어났던 추

상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 퍼포먼스 등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의 작품은 과거 미국 미술을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재발견하고 재해석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미국 남성이 열광하는 고급 스포츠카나 오토바이 등을 소재로 노골적으로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대중문화를 비판한다. 그는 “당시 문화 대격변기 와중에 있던 작가들보다는 지금의 40대 작가들이 그 시대를 더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임스 딘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영상 작품도 눈에 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아트인스티튜트를 나온 그는 2004년 예일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현재 뉴욕에서 작업하는 그는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독특한 작업 배경을 설명했다. 12월 15일까지.

(02) 735-8449

이향휘 기자